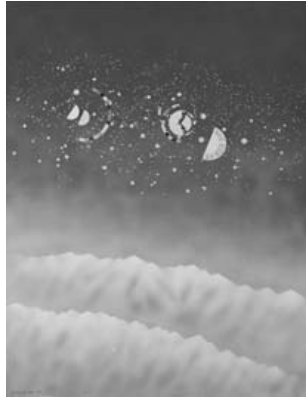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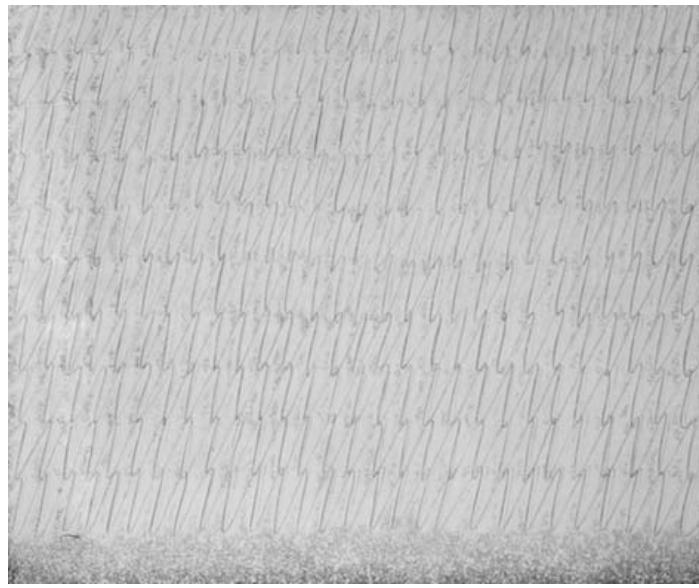
메세나 정신 깃든 韓 추상미술 '한자리'

●내달15일까지 하정웅미술관 컬렉션전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하정웅미술관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시에 2천600여점의 작품을 기증한 하정웅 선생의 메세나 정신을 기리는 전시공간이다. 영암 출신 재일 한국인 하정웅 선생의 컬렉션 작품은 광주시립미술관 소장품 60%를 차지할 정도다. 방대한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뛰어난 수준의 작품들로 채워져 있다. 이러한 그의 컬렉션은 광주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준을 높이고 미술관 위상을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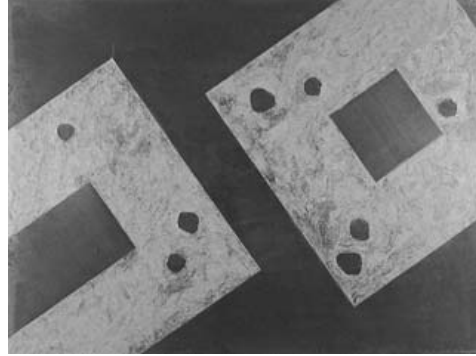
이성자작 '극지로 가는길'



박서보작 '묘법 6-80'



김창열작 'work'



김종일작 '존재2001-1'



우재길작 'work89-1026'

실험정신 넘치는 1970년대 모노크롬 회화부터 지역 추상미술계 역사 담긴 아카이브까지 김창열·박서보 등 27명 작가 60여 작품 선봬

하정웅 컬렉션 가운데 20세기 중후반 한국미술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작가들의 추상미술 명작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다음달 15일까지 하정웅미술관에서 펼쳐지는 '하정웅컬렉션으로 만나는 한국추상미술' 전시다.

전시에서는 박서보, 김창열, 윤명로 등 한국 추상미술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작가 27명의 작품 66점과 아카이브 40여점을 선보인다.

하정웅 선생은 1980년대 일본에서 열린 국제 전시 '한일현대미술전'에서

박서보 등 한국추상미술 작가들을 만났고, 40년 간 그 인연을 이어왔다. 그는 한국에 방문할 일이 있을 때마다 이들의 작업실을 방문, 작품을 수집했으며 해당 작품들은 미술관에 기증됐다.

이번 전시는 예술가의 자율성,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한 한국 대표 추상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이와 함께 호남 추상미술을 전개하고 발전시킨 중요한 작가의 작품과 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전시는 '단색화 전통', '추상미술의

다양화', '1세대 추상미술', '광주추상미술과 에보끄' 등 주제별로 구성됐다.

먼저 '단색화 전통'은 1970년대 모노크롬 추상미술을 다룬다. 이들은 대상의 구별을 없애고 화면을 하나의 평면으로 취급하면서 그 안에서 한국적 정체성을 추구했다. 하정웅컬렉션 모노크롬 작가로는 김중일·김진석·박서보·윤형근·정상화·정영렬·최명영·최종섭·하종현·허항 등이 있다.

'추상미술의 다양화' 섹션에서는 1960년대 후반 이후 다양한 미적 개념과 표현 양식으로 추상미술을 전개한 한국 아방가르드 작가를 조명한다. 이들

작가 중 1920년대 이전 출생한 '1세대 추상미술'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통해 한국추상미술의 깊은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김창열·문신·이두식·이성자·이항성·우재길·윤명로·이세득 등 작품을 전시한다.

'광주추상미술과 에보끄'는 한국추상미술 전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호남 추상미술 작가에 대한 전시다.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 추상미술을 이끈 미술 단체인 에보끄에 관한 아카이브를 선보인다. 출품작은 한국과 호남 추상 화단의 선구자인 양수아·강용운을 비롯해 에보끄를 중심으로 활동한 김용복·김종일·우재길·장지환·최종섭·최재창 등 작품이다.

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은 "하정웅컬렉션 중심 한국추상미술 작가 전시를 통해 미술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술의 고장 광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며 "미술과 예술가를 사랑한 하정웅 명예관장이 전하는 행복과 진정한 메세나 정신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에보끄...호남 추상미술을 이해하다

오늘 하정웅미술관서 전시연계 서성록·정금희 교수 특강

'하정웅컬렉션으로 만나는 한국추상미술' 전시연계 특강이 진행된다.

2일 오후 2시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특강은 한국과 호남의 추상미술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자리다. 현재 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한국추상미술 거장 작품, 에보끄를 중심으로 한 호남추상미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날 강연자로는 서성록 안동대 명

예교수와 정금희 전남대 미술학과 교수가 나선다.

서 명예교수는 한국미술평론가협회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미술평단을 이끌고 있는 미술평론가다. 특강 주제는 '한국추상회화에 대한 단상'으로 한국 추상미술 전반을 살핀다.

정금희 전남대 미술학과 교수는 전남대 예술대학장, 유럽문화예술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대 예술 연구와 미



서성록 명예교수



정금희 교수

술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는 미술평론가이자 교육자다. 이날 강의는 '광주·전남 추상정신 60년, 에보끄를 돌아보다'를 주제로 에보끄 미술단체를 통해 예술가들이 끊임없는 연구와 새로운 미술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에 관해 강의할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운수대통, 만사형통 굿!”

남도국악원 6일부터 '굿음악축제' 학술회의·공연 등 '다채'



동해안별신굿

개원 20주년을 맞이한 국립남도국악원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굿'을 주제로 '2024 굿음악축제'를 개최한다.

행사는 오는 6-7일을 시작으로 13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열린다. 공연과 학술회의, 부대행사 및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먼저 6일 오전 9시30분 '굿음악연구 성과와 전승 현황'을 주제로 학술회의가 열린다. 이날 자리에서는 남도국악원 굿음악 연구 현황과 미래를 전망한다. 오후 7시에는 개원 20주년을 축하하며 '부천성주굿보존회'를 초청 공연을 연다. 개인과 집안,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축원하는 무대가 펼쳐진다.

7일 오후 2시에는 진도지역 상장례 속에 전승되는 '진도다시래기보존회'

와 '진도만가보존회' 초청공연이 예정돼 있다.

13일에는 굿음악축제와 연계한 국립국악원 초청공연 '꽃신 신고 휘황' 무대가 관객들과 만난다. 20일과 27일에는 우리나라 대표굿인 '동해안별신굿'과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초감제' 초청공연이 각각 열린다.

이밖에도 6-7일 굿 관련 체험과 부대행사 및 진도지역 문화 탐방이 준비돼 있다. /최명진 기자



루앙메스56에서 진행되는 초대전 '중력이동' 전경.

빛고을 청년 작가,

인도네시아 미술교류 장 잇는다

17일까지 미술축제 '아트족' 참여 루앙메스56서 초대전 '중력이동'

광주 지역 청년작가들이 인도네시아 최대 미술축제 '아트족'에서 초청전을 연다.

'아트족'은 매년 여름 족자카르타에서 진행되는 인도네시아 최대 미술축제다. 오세아니아권 콜렉터와 미술관계자들이 대거 방문하는 행사로 알려져 있다.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초청 전시는 인니 대표 대안공간인 루앙메스56의 초대로 성사됐다.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 문화예술 교류를 지속 확장하고 한국의 현대미술을 인도네시아 관객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자리다.

전시 참여작가는 김자이, 이세현, 임

용현, 장윤성, 서영기, 윤준영, 안희정, 이인성 총 8명이다.

이들은 '중력이동'이라는 전시 주제에 맞춰 시대를 거쳐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인간 문제와 사회적 이슈를 다루며, 저마다의 매체와 방법론으로 현대 세계의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층위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전시를 기획한 이은하 콜렉티브오피스 대표는 "지난해 광주 청년작가들의 레지던시와 초대전에 이어 올해 아트족 자를 기념해 다시 한 번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게 됐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와 광주 사이 활발한 문화예술 교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 메이저급 갤러리 스리산티 갤러리 창립 30주년 기념전 'Tatar'에는 하루K가 초대돼 작품을 전시 중이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상주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지방 지사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평지국 371-9584
	· 풍암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완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신지국 944-0993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지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할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6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